

“시력교정술, 자신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

HEALTH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땀이 나고, 요즘처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 안경의 불편함이 크게 다가온다. 렌즈 또한 장시간 착용 시 눈이 건조해지는 불편함이 있으며, 수영장에서 사용 시 각막염의 위험성도 커진다. 이 같은 안경과 렌즈의 불편함에 시력교정술을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의 초입에서 시력교정술을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해 보라안과병원 장재용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시술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라식·라섹·렌즈삽입술 등 다양한 생활패턴 따라 수술법 고려해야

△시력교정수술 장단점 고려해 선택

더운 날씨에 수술을 받으면 상처가 덧날 수 있다는 선입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날씨와 시력교정술은 관련이 없다. 이보다는 직업, 생활환경, 눈의 상태, 다양한 시력교정수술의 장단점을 고려해 개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력교정술을 받을 때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라식, 스마일 수술이 적합하다. 초고도 근시는 ICL 같은 렌즈삽입술이 필요하다.

특히 정확한 검사를 통해 어느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해보고, 여러 수술방법과 개인마다 눈의 특징이 있으므로 첨단장비와 경험 많은 시력교정팀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필수다. 여름철 굴절수술, 정확한 검사와 완벽한 수술이 이뤄진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빠른 회복 ‘라식’...외부충격에 강한 ‘라섹’

대표적인 시력교정술로는 라식과 라섹이 있다. 우선 라식 수술은 각막을 얇게 포를 뜨듯 푸경을 만들어 열어놓은 뒤 수술이 진행된다. 각막을 깎은 후 열이 높았을 푸경을 그대로 덮어 놓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2~3일이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

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

라섹 수술은 각막 가장 위쪽의 상피 부분을 얇게 벗겨낸 후 수술이 이뤄진다. 수술 시 벗겨냈던 각막 상피가 재생되기까지 3~4일간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완전한 시력 회복이 되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라섹은 라식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일라식, 통증·후유증 거의 없어 각광
최근 가장 많이 각광받는 스마일라식은 각막을 투과하는 펄스초(1000조 분의 1초) 레이저를 사용한다.

레이저를 각막에 투과시켜 각막 안에서 교정하는 것으로, 이후 2mm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각막 조각을 분리해 빼내는 것으로 수술이 끝난다.

스마일라식은 각막 표면을 벗기거나 각막을 자를 필요가 없이 각막 표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 각막의 본래 건강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각막확장증이나 각막혼탁의 우려가 가장 적다. 또한 최소한의 절개만으로도 시력교정이 가능해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후유증이 드물다. 수술 이후 빠른 회복의 시력교정술을 선호한다면 스마일라식을 추천한다.

스마일라식은 라식과 비교해 각막 손상을 1/10로 줄여 외부충격에 강하고 수술 다음 날 세안 등 일상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신경 손상이 최소화되고 레이저 에너지도 적어 건조증 발생이 심하지 않



장재용 보라안과병원 원장이 시력교정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눈을 검사하고 있다.

아 PC 작업, 책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라식·라섹 안되면 안내렌즈삽입술 받아야

ICL로 대표되는 안내렌즈삽입술은 쉽게 설명하면 눈 속에 본인에 맞는 특수렌즈를 넣어주는 수술 방법이다.

ICL은 라식이나 라섹과 달리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므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레이저 수술로 많은 양의 각막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에 따르는 고도근시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ICL은 각막의 손상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력을 원상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시교정용 ICL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함께 해결할 수도 있다.

통증이 덜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어 라식이나 라섹이 어려운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안내수술이므로 무균 수술실 환경을 갖추고 다른 안과적 문제를 모두 교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움말=장재용 원장 보라안과병원

광주신세계안과, 호남 최초 스마일수술 ‘5만례’

도입 9년 만에 성과...명실상부 ‘스마일센터’ 입증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명실상부한 ‘스마일센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광주신세계안과는 호남지역 최초로 스마일수술 5만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스마일수술 도입 이후 9년여 만이다.

스마일수술은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더한 시력교정술이다.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에 1~2mm 미세 절개로 시력교정량 만큼 각막 실질층을 제거한다.

각막을 크게 절개하거나 벗겨내지 않고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통증이 거의 없고, 다음날

부터 세안이나 가벼운 운동, 화장이 가능할 만큼 회복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 칼자이사에서 ‘LEADING SMILE CENTER’ 감사패와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 상을 받기도 했다.

또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ICL렌즈삽입술을 기록해 개발사인 미국 STARR Surgical사로부터 3년 연속 ‘베스트 ICL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해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리사트리(Lisa tri) 렌즈 5000례를 기록해 호남 최다 인증서를 받는



등 시력교정술은 물론 노인·백내장 수술도 인정받고 있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스마일수술은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 수술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수술로 의료진의 숙련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5만례의 풍부한 수술 경험을 토대로 더욱 완벽하고 안전한 수술결과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안과는 스마일 장비인 비주맥스(VISUMAX)를 3대 운용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수술을 계획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대병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한다

만성질환 맞춤형 관리 기대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대규모 국책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의 과제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도입 확산과 기술발전 선도를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 AI 강국 도약을 위한 자문화 혁신 및 성장화를 목표로 지원과제를 공모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대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과학기술원, 나무기술원, 나무인텔리전스, ㈜이투온아이앤에스, ㈜커넥티드, (재) 씨젠 의료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지원금 34억 원을 받아 올해 11월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오태렴 신장내과 교수가 총괄책임자를 맡아 ‘만성질환 데이터’ 사업 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과제는 ‘만성 공발병 및 합병증 추적관찰 임상 의료 데이터’와 ‘만성질환 관련 임상 및 생활습관 데이터’로 구성. 향후 만성 공발병, 고혈압 및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 데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렴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 데이터 기반의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구현된다면 만성 질환 환자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 고혈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성 공발병은 국내 대도시 30세 이상 인구 내 유병률이 13.7%(2008년 대한신장학회 조사결과)로 알려진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위험인자 교정과 약물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로 다양한 합병증 예방이 필수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측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신하 기자 goback@

조선대병원, 2021년 입사 간호사 현장적응 워크숍

금지·자부심 향상 프로그램 진행

조선대병원은 최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입사 1년 차를 맞은 2021년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적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해 온 노고를 격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병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호업무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경중 병원장의 격려사와 기쁨 간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초점을 맞춰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유연정 전 간호부장)’, ‘몸과 마음 비워내기(김남희 교육수련팀 파트장)’, ‘수선생님과 신규 간호



조선대병원은 최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입사 1년 차를 맞은 2021년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적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 함께(문성미 간호행정팀 수간호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경중 병원장은 “한창 병원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조선대병원의 한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간

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간호사 업무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 간호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팀

대한신경손상학회 ‘다인 우수발표상’ 수상

조선대병원은 최근 김석원 신경외과 교수팀이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재자인 ‘다인 우수발표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석원 교수팀은 ‘경추골절 및 신경손상 환자에서 전방접근법의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연구를 통해 기존의 수술 치료법과 비교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조선대병원 기획실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왔고,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및 교육위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



회 편집위원, 대한신경손상학회 상임이사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